

창간 3주년

인류의 역사는 인간성 상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질문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이제 인류사회의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업보가 되었다. 이같은 시대상이 새로운 세기로 그냥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운 세계를 선도해 가야 할 불교가 인간성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불교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승가의 원로인 정조스님(74 석남사주지)과 원로역사학자 박성봉교수(71·경희대 명예교수) 불교학의 세계적 권위자 박성배교수(63 동국대 석좌교수) 3형제의 정담을 통해 들어본다.



정조 스님

· 1924년 전남 보성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전라남도 은사로 사마계 구안스님 계사로 비구계수지 · 인천 용화사 승려사 태안사 등서 참선정진 · 화산 만연사 주지 역임

업장소멸 생활화 최선의 처방

정조스님·박성봉 교수·박성배 교수 “인간성을 회복하자”

박성배: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 인간성이 무엇이나, 물론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성과 불성을 달리 생각하지 않아. 온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이 있으니 그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 가르침이 불교거든요. 우리도 그 생명의 주인공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의 성품이 바로 인간성인 것이지.

박성봉: 인간이 본래 타고난 몸이나 마음 힘 등을 인간성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인간성이란 10세 이전에 가장 순수하게 유지되고 철이 들면 이미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박성배: 스님의 말씀은 인간성에 대한 불교적 정의로 우주에 편만한 생명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간성의 구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님은 육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육체에 담긴

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불교에 세지번총(世解總)이란 말이 있는데 지해는 있으되 참다운 이치에 따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참다운 지해의 성품을 갖추었으면서도 현실에 매몰돼 인간성을 상실해 온 것입니다.

스님: 인간성의 상실이란 바로 무명업식과 탐진치로 인해 스스로 봉쇄한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박성배: 스님, 무명업식이나 탐진치는 산업혁명이나 농경사회 이전의 인류에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스님: 물론 그렇지요. 농경 사회를 거쳐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전되고 사회구조를 따라 극대화 되어 온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상황은 단순한 인간성 상실의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한 업보라는 거야. 불성이란 불성불멸이지만 업식으로 인해 가려져버려. 그것이 무명업식. 우리의 인간성도 무명업식으로 인해 폐쇄되고 상실되어 온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정조스님, 박성봉 교수, 박성배 교수의 모습. 박성봉 교수의 왼쪽은 정조스님, 박성배 교수의 오른쪽은 정조스님이다.

불성-인간성 '하나'... 상실원인 '무명' 삼매체험 축적돼야 참성품 드러나

힘을 끄집어 내어 쓰는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두 입장이 서로 다른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본래 모순적인 것인지 모순은 아니되 표현이 다른 것인지요.

스님: 불교에서 생사일여(生死一如)니 불이사상(不二思想)이니를 말하듯 그것은 같은 것이라 봐야해. 육체는 마음의 화현이니 말이지.

박성배: 진리의 세계가 둘일 수는 없으나 그것을 생각하고 보는 입장의 차이는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인간성 상실의 과정에 대한 반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이야기 해 보아야겠습니다.

박성봉: 인류가 수렵생활을 할때는 자연과의 공존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 이후 인간성의 상실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갖는 자와 덜 갖는 자, 힘이 센 부족과 힘이 약한 부족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인간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정착된 후 5백년 사이에 4대성인이 출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박성배: 인간성의 상실이란 가치가 있는쪽이 없는쪽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변화하는 삶의 형태를 따라 가속화 되

것이아.

박성봉: 자연적인 삶에서의 약조건을 극복하려는 노력, 즉 불의 발견을 최초의 잘못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2의 불인과 제3의 불인 원자력으로 발전되며 인간성의 폐쇄와 상실화가 함께 지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박성배: 최근 발생한 박나리양 유괴 살인 사건은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 사건은 반드시 범인 전(全)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바짝 붙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본래 선과 악이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환경의 차이에서 그것이 선으로 혹은 악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성적인 힘이 어느쪽으로 기울어나 하는 것이 문제야.

박성봉: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을 권력이나 금력에 두는 한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유지되고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과 문화 종교의 생활을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 경악스런 사건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성배: 아무리 공평한 처지에서라도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간성의 근본인데 이제는 '못할 짓이 없는' 처지에 너무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 앞에서 무명업식과 탐진치를 얘기했지요. 바로 그런 업보에 의해 상실의 현상이 심화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므로 중단없는 교육과 훈련 다시말해 수행의 힘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선덕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답은 바로 '삼매'에서 찾을 수 있어. 삼매란 선도 악도 구분이 없는 본래 불성의 자리 곧 인간성의 가장 맑은 자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삼매의 체험이 일상화된 세상을 열반세계라 하지.

박성배: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스님께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성의 회복을 위

한 불교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란 말을 불자들은 들었을 거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지 않거든요. 나는 믿음의 삶, 다시말해 자신의 참된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내는 삶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을 불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박성배: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보다 더 종교적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돈벌이를 위해 믿거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믿는, 종교를 생활 수단화 하는 그릇된 현상마저도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인간이 도구화되고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일원화된 현실에서 종교인(불교인)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반성하는데서 종교의 교육적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살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런 기회의 제공

도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박성봉: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 하는데도 '몇점부터 몇점까지는 어느대학 무슨과'라는 식으로 규격적인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박성배: 이미 우리는 한국의 교육은 역사관과 철학성이 결여된 것이라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육도 배우는 자에게나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 똑같은 수행입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 역사관과 사회의식을 바로 심는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종교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재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삼매를 통한 열반 세계의 구현' 같은 교육을 현대교육에서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불교가 그 뜻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호처럼 수행의 생활화를 외치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지 않고는 삼매를 통한 인간성 회복 역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수행의 생활화라든가 교육이란 인간의 사고방식을 부처님의 그것에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성봉: 종교가 사회 역사에 생산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절에서 한문교육을 수준높게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는 힘을 불교가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대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은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 불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종교야. 합장인사가 의미하는 하심(下心)의 도만 알아도 범칙은 없어질 것 아니겠나. 바루공양의 정신만 지켜도 환경문제는 더 이상 비화되지 않을 것이고. 물론 불교 내부적으로도 보다 철저한 수행과 열의의심으로 사회를 구제할 역할을 구축해야 해.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생활화거든요.

박성배: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고 그 깨침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깨침을 위한 순간순간의 깨어짐이 가능하도록 수행 정진이 따라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참다운 인간의 세계, 다시말해 불성의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임연태 · 사진=고형배 기자

下心의 도만 알아도 범죄 없어질텐데...



박성봉 교수

· 1927년생 · 고려대 사학과를 ·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 경희대 국사과 교수, 전통문화 연구소장 역임. 한국사상학회 경기사학회 한국고서연구회 회장 · <고구려 남진발전사> (민족한국사) 등 저서 논문 다수

'자리아타'의 삶 가치관 혼돈 막는 길



박성배 교수

· 1933년생 동국대 철학과 및 현대학원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불교학 박사학위 · 현재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한국학과장 및 한국학사리조및학술지(한국사상) 편집장 · <불교신앙과 집오사상> 등 저서 논문 다수

종교의 교육기능 강화 부처님 닮도록 이끌자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새시대 한마음
신나는 政治
신바람 經濟
따뜻한 社會
불국정토의 구현

민주당 民主黨 總裁 趙 淳